

미래 첨단 국방기술 발전 국가 안보 경쟁력 강화

전북대,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3자 협약 체결
연구개발·인력 양성, 거점국립대 육성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첨단 국방기술 발전과 국가 안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첨단과학기술 기반 국방혁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기술 전문기관과 거점국립대가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연계하고,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16일 체결된 3자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국가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 △소속 교원 및 임직원 간 상호 인적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전북대학교가 추진 중인 첨단방위산업 분야 인재양성

및 산학연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학교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방위산업, 시험평가, 품질관리, 기술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연구 협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첨단방위산업 분야 교육·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국방과학기술 전문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지역과 국가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거점국립대로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방산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는 산학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이번 협약은 국방과학기술 전문기관과 거점국립대가 함께 미래 국방혁신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기반 방위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전북대학교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긴밀히 협

력해 첨단방위산업 분야 교육·연구·산학협력의 거점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품질 및 방위산업 현장의 전문성을 대학 교육·연구와 연계하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재홍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은 "첨단기술 중심의 국방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방기술 기획과 전문인력 양성의 연계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전북대학교 및 국방기술품질원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국방기술 발전과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향후 세부 협력과제를 별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학교가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북미래학교 주체별 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미래 사회를 이끌 창의적 인재 양성과 학교 현장의 수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미래학교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부터 19일까지 전주차량자산산지 평화의전당에서 2026년 전북미래학교 주체별 네트워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14개 전북미래학교의 교원(원)장과 교(원)장, 담당 교사, 교육전문직원 등이 참여해 학교별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장·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등 각 주체별로 부파를 구성해 전북미래학교의 발전 방향과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는 △함께 나누는 전북미래학교(학교별 교육활동 사례 나눔) △함께 풀이하는 전북미래학교(필수과제 운영 현황 공유) △함께 그리는 전북미래학교(정책 제안) 등 세 가지 주제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민주적 자치공동체 운영을 비롯해 기초·기본하위 기반 하위 향상, AI·디지털 활용 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중심의 수업 혁신, 미래역량 중심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네트워크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전북미래학교 지원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혁신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지역 특성화고 학생 진로 설계 역량 강화

우석대학교,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IAP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김아름 학생 최우수상... 진로 설계 역량·실행 가능성 높은 평가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제3회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IAP(취업활동계획서)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은 지난 15일 전주캠퍼스 정공관 5층 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진용덕 대학일자리본부장을 비롯해 수상 학생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북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 170명이 참가했다. 참가 신청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됐으며, 이후 6월 5일부터 8일까지 내·외부 위원 3명이 서면 심사를 실시했다. 심사는 목표의 명확성, 활동계획 구성, 개인 소감 등 3개 항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참가 학생들은 대회에 앞서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컨설턴트와 1대1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자신의 적성과 진로 방향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IAP를 작성하고, 취업 준비 과정과 향후 계획을 담은 소감문을 제출했다. 또한 단계별 멘토링과 컨설팅을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며 진로 설계 능력을 강화했다.

심사 결과 김아름(진경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아름 학생은 취업활동계획서의 구체성과 완성도, 실현 가능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유인영(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2명이 우수상을 받았으며, 소명(원광보건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한 20명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진용덕 대학일자리본부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고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고교생들이 체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석학·기업가 초청 미래 비전 공유

수소에너지고, 미래 수소 인재 위한 진로특강 개최

수소에너지고등학교(교장 송현진)가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를 초청한 진로 특강을 개최했다.

수소에너지고는 지난 15일 교내 시청각실에서 1·2학년 재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수소 인재를 위한 미래 비전 및 기업가 정신 진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에게 수소산업과 신에너지 분야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산업 현장의 혁신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올바른 직업관과 진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업들의 장학금 기탁과 채용 연계 성과도 함께 소개되며 산학협력의 성과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는 학계와 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3명이 연사로 참여해 특강을 펼쳤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KAIST 경영대학 김상원 교수는 AI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신에너지 산업 전반의 공공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통찰력을 강조했다. 또한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학습 자세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제로콜부터 박상욱 대표는



수소에너지고는 지난 15일 교내 시청각실에서 1·2학년 재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수소 인재를 위한 미래 비전 및 기업가 정신 진로 특강'을 진행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강연에 나선 이임철 SK이노베이션(E&S) 부사장은 개인의 성공과 야망을 넘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소명'을 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며 학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특강과 함께 미래 수소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기업들의 지원도 이어졌다. 이임철 부사장은 현장에서 우수 학생 4명에게 총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200만 원의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기탁하고 학생들의 진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강에 참여한 한 2학년 학생은 "수소산업의 미래 가능성과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기업들의 장학금 지원과 채용 연계 소식을 들으면서 학업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해왔다는 동기부여를 얻었다"고 말했다.

송현진 교장은 "대한민국 수소산업과 경영 혁신을 이끌고 있는 세 명의 전문가를 모시기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기업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이 힘입어 학생들이 미래 에너지 사회를 선도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AI·디지털 교육 현장 안착 밀착형 컨설팅

전북교육청, AI 중점학교 81곳·선도학교 100곳 대상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의 현장 안착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밀착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AI 중점학교 81개교와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학교 현장에서 AI·디지털 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당 사업 운영 경험이 풍부한 교사지원단이 컨설턴트로 참여해

실제 수업과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컨설팅에서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방안과 학습지원소프트웨어 활용 절차를 안내하고, AI·디지털 기반 교육자료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활동 사례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 혁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중점학교 컨설팅에서는 학교급별 AI 정보 교과 시수 편성과 운영의 적정성을 비롯해 교원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

영 현황, 학생 동아리 활동, AI 교육 문화 조성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선도형·중심형·문화확산형 등 학교 유형별 특화과제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학교별 운영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도내 학교에 공유·확산함으로써 AI 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컨설팅 결과를 분석해 2027년 사업 계획 수립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학생맞춤통합지원 안정적 체계 구축

전주교육지원청, 학생맞춤 통합지원 찾아가는 연수 운영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이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체계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연수·컨설팅을 운영하며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 학생맞춤통합지원 찾아가는 연수·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수·컨설팅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학교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직접 파악해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현장 중심 지원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1차 찾아가는 연수·컨설팅에는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 총 27개교가 참여했으며, 교직원 94명이 연수에 함께했다.

연수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방향과 운영 체계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지원 대상 학생 발굴 및 선정 절차, 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 활용 방법, 학교 운영 우수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또한 학교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 지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맞춤형 컨설팅도 병행해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했다.

특히 학교별 여건에 맞춰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 위기학생 조기 발굴, 사례화의 운영, 학생 이해자료 작성, 지역사회 연계 협력 방안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원에 참여 교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1차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2차 찾아가는 연수·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2차 운영에서는 학교별 수요를 더욱 세밀하게 반영해 위기학생 사례 관리와 학생맞춤형 지원 방안,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현장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주교육지원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전면 시행에 맞춰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역위원회 구성, 교육지원청과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학교 대상 컨설팅 및 연수 지원 등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인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채선영 교육장은 "전주교육지원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합적 학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찾아가는 연수·컨설팅을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미디어 문해교육 교원 역량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원의 미디어 문해교육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수업 실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교원 연수를 마련한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초·중등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2026 미디어 문해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오는 17일과 24일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수·학습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교원들의 미디어 문해교육 전문성을 높이고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미디어 노출과 온라인 혐오문화 확산 가짜뉴스 및 허증편향 문제 등이 교육 현장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학생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디어 문해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오는 17일에는 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팩트체크를 넘어 교실 속 혐오문화에 맞서는 미디어 문해교육 수업'을 주제로 연수가 진행된다.

이어 24일에는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으로 수업 넓히기 과정'이 운영된다.

이번 연수는 현지 교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학교 현장의 실제 경험과 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참여형 연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오상근 기자